

한빛원전 6500억 들여 증기발생기 8대 조기 교체 준비

결합 근본 원인 규명 안된 채 추진 논란

3~6호기 설계 수명 절반 가량 채우고 막대한 예산 투입 전문가들 “교체 후 결합 댄 재정손실·안전성 문제” 지적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의 증기발생기 관막을 제한치 완화를 추진(10월25일자 6면)하는데 이어 6500억원에 달하는 전문학적 자금을 들여 증기발생기 조기 교체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원전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다. 원전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 결합의 근본 원인 규명도 없이 관막을 제한치를 완화해 안전에 부담을 준데 이어 수천억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한수원의 재정 손실 및 전기 생산 원가 절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오는 2018년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한빛 3·4·5·6호기 증기발생기(8대) 교체작업이 진행된다. 한빛 3·4호기는 3121억원, 한빛

5·6호기는 3400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6500억원 수준이다.

한빛 5·6호기가 2002년, 한빛 3·4호기가 1995, 1996년 각각 가동에 들어간 것을 고려하면 설계 수명(40년)의 절반 수준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 증기발생기 교체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수원 측은 설계 수명(40년)을 채우지 못하고 수천억원을 들여 증기발생기를 조기교체하는 배경에 대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재질(인코넬 600소재) 문제로 인한 세관 결합을 해소하고,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를 향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교체되는 증기발생기는 논란이 제기된 기존 ‘인코넬 600’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쓰

이는 ‘인코넬 690’ 소재로 재질이 강화된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전 전문가들은 결합 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 규명 없이 ‘세관 재질 탓’이라고 여기고 증기발생기를 교체하는 것은 안전성이나 경제성 측면 모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형 원전 특성상 원자로 1개당 증기발생기가 2대인 탓에 증기발생기가 3대 이상 딸린 여타의 원전과 달리 세관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증기발생기와 연결된 펌프의 개수 차이 등 설계의 차이로 인한 결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코넬 600소재된 세관 재질 탓으로만 여기고 조기 교체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내놓아야 할 한수원 중앙연구원조차 결합 발생이 집중된 위치 등 결합 양상이 한빛 3·4·5·6호기 증기발생기 별로 차이가 나는데도 ‘제조사별 품질 차이, 운전

방법 및 정비 방법 차이’ 등 결합 유발 가능성을 열어하는 수준에서 원인 규명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에서 한수원이 보유한 기술 수준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원전 전문가는 “한빛 3, 4, 5, 6호기와 똑같은 인코넬 600소재로 증기발생기 세관을 만든 한빛 1.2호기는 1986년 상업운전을 개시했는데도 현재까지 조기 교체 논의가 없다”면서 “설비 재질 탓으로 결합 원인을 선불리 단정짓고 거액을 들여 교체한 뒤 또다시 결합이 잇따르면 그때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기발생기 세관 결합에 대한 근본 규명 없이 관막을 제한치를 완화해 가동을 이어가며 시간을 번 뒤, 거액을 투입해 증기발생기를 교체하는 것은 국민 경제와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전 내달 1조원 규모 협력업체 선정 입찰 앞두고 입찰 조작 가능성 제기 ‘시끌’

광주·전남 업체 대표 200여명 “부산울산본부 입찰 조작 흔적” 한전에 의혹 규명 촉구

한국전력이 다음달 4일 진행되는 전국단위 대규모 협력업체 선정 입찰을 앞두고 참가 예정업체들이 ‘입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광주·전남에 기반을 둔 전기공사업체 대표 200여명은 최근 한전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진행한 10억원대 공사입찰 과정에서 “입찰 조작 흔적을 발견했다”면서 한전 사장을 상대로 공개질문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기공사업체의 연합체 성격인 광주전남무정전협의회는 25일 “한전 부산울산지역 본부가 지난 9월 20일 전국 전기공사 업체 4200여개를 상대로 진행한 10억원대 공사 입찰에서 입찰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입찰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내달 4일 진행예정인 1조원대 전국단위 단가업체 선정 입찰 전 한전은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찰 조작 가능성 의혹 제기 배경에 대해 “한전이 당시 1차로 공개한 4개의 추정번호(2, 3, 9, 14)와 예정가격은 10억7108만4515원이었는데,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입찰번호와 낙찰 예정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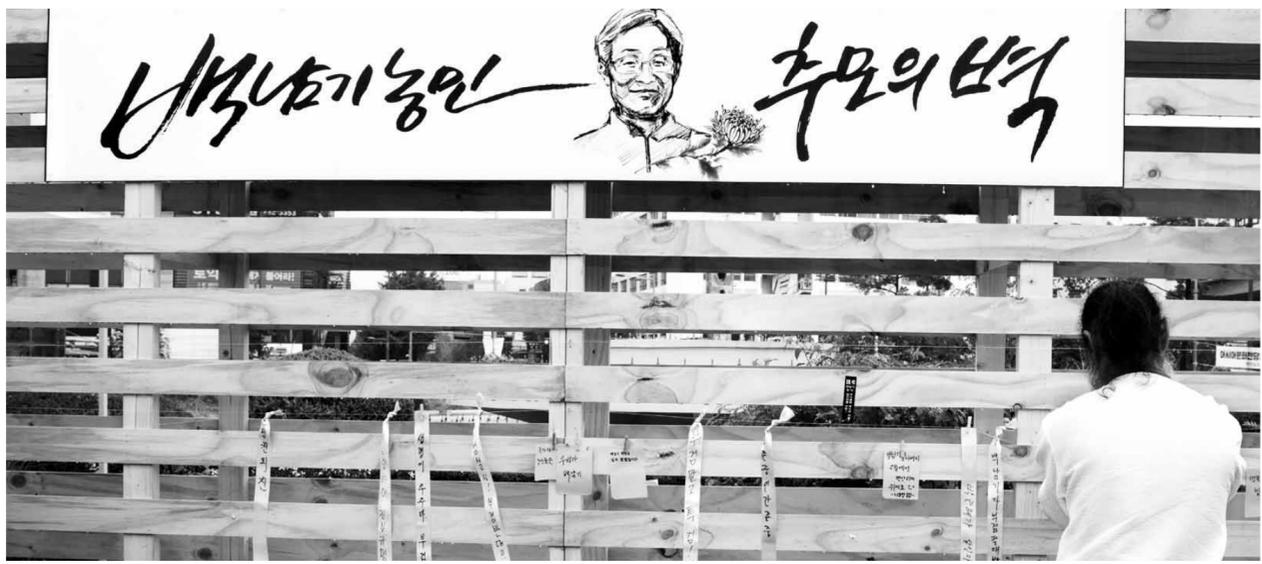
은 모두 그대로인 반면, 예정가격 산출의 근거가 되는 추정번호별 예비가격은 달라진 2차 내용이 공개됐다”면서 “누군가 입찰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추정번호와 예정가격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1차와 2차로 공개된 4개의 추정번호 2, 3, 9, 14번은 동일했지만 회사별 추정번호가 제시한 예비가격이 서로 달라 각 추정번호가 제시한 예정가격의 합산 가격(낙찰 예정가)이 10억7108만4515원과 10억9019만1240원으로 차이가 나는 계산 등 증거로 확인되는데도, 한전이 공개한 낙찰예정가는 10억7108만4515원이었다. 절대 같을 수 없는 2개의 낙찰 예정가가 동일한 금액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전기공사 업체 관계자는 “한전 측은 시스템 오류라는 설명이지만, 전산 오류라면 낙찰 예정가격이 같을 수 없다. 입찰 조작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한전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입찰 비리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내달 4일로 예정된 입찰 전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일이란 점을 설명했지만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기회가 되는 대로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18 민주광장 추모의 벽 백남기농민 광주투쟁본부는 25일 오전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검찰의 부검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회원들이 백남기농민을 추모하는 벽에 추모문구를 붙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강제부검 시도 중단·책임자 처벌 촉구

백남기 농민 광주투쟁본부

‘백남기 농민 광주투쟁본부’는 25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백남기 농민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씨에 대한 강제부검 시도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광주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

이 명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강제부검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광주투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분향소 옆에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을 설치했다. 추모의 벽은 추모 문구를 적은 녹색 리본을 매다는 형태로, 백씨의 장례가 끝

날 때까지 운영된다.

시민들은 ‘특검실시, 부검반대’,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기억하겠습니다’ 등과 같은 글귀를 추모의 벽에 남기고 있다.

한편, 이날 부검영장의 2차 집행에 나섰던 경찰은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재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흥원선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3시 백씨 시신이 있는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과 백씨기 투쟁본부의

반발로 장례식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흥 서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투쟁본부가 극렬하게 저항하고 날도 저물어 야간집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불상사가 우려돼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철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확한 사인의 규명을 위해 부검이 불가피하다는 경찰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이날 영장이 집행되지 않으면 경찰은 부검영장을 재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허위사실 유포 등 총선 사범 3명 벌금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신문 기자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 B(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광주 모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주민 20

명에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 관계자 B(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의회와 군청을 방문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C(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거 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필로폰 투약 후 경찰서 찾아가 횡설수설한 40대 ‘쇠고랑’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경찰서를 찾아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횡설수설한 40대 남성이 쇠고랑.

○...2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김모(44)씨는 지난 22~23일 이틀간 광주시 동구 한 모텔에서 주사기

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 ○...김씨는 서울에서 60만원을 주고 20차례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g을 구입했는데, 경찰은 “지난 23일 경찰서를 찾아와 이상한 소리를 하기에 처음에는 술에 취한 줄 알았는데, 소변검사 결과 필로폰 투여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LPG충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변 터널식차차시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평가 12억7천4백 ▶ 최저가 8억9천3백
- ★ [공장] 서구 동천동 상무자동차전문학원인근 공장일지지역 토지 1,226㎡ 건물 322.35㎡ 감평가 12억1천7백 ▶ 최저가 8억5천2백
- ★ [공장] 화순군 이양면 풍평리 농공단지내 12m도로접 토지 6,600㎡ 건물 2,579㎡ 감평가 27억5천3백 ▶ 최저가 12억3천3백
- ★ [공장] 담양읍 삼관리 토지 9,902㎡ 건물 2,921㎡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육가공공장 감평가 44억5천1백 ▶ 최저가 24억9천3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9,178㎡ 건물 5,842㎡ 장성백이사거리 인근 공장지대 감평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5억5천9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5,977㎡ 건물 2,122㎡ 동화사거리부근 공장지대 감평가 13억3천6백 ▶ 최저가 7억4천8백
- ★ [공장]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9,917㎡ 건물 3,989㎡ 대마일반산업단지내 감평가 35억2천7백 ▶ 최저가 19억7천5백

투자 추천 물건

- ★ [공장, 충전소] 광양시 진월면 진월C인근 4차선대로변 토지 12,914㎡ 공장 1,922㎡ LPG충전소 352㎡ 매매 37억5천
- ★ [공장]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제2산업단지내 토지 6,627㎡ 건물 4,226㎡ 매매 19억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정문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상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상가 28억선 교환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무인텔] 북구 유동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4천만원 이상 수익 위치좋은 매매 20억

수익형 추천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요양병원 허가 취득)
- ★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터리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 6억포함) 보증금 7천 월 4백6십 매매 13억5천
- ★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대단지 토지 5,359㎡ 건물 595.4㎡ 2층공장 매매 평당 2백5십
- ★ 광주 북구 풍향동 6층건물 1층 마트 2~3층 목욕탕 4~6층 원룸 26개, 목욕탕 직영중 보증금 1억1천5백 월 9백7십 매매 18억
- ★ 광주 남구 백운동 왕복5차선도로 버스승강장부근 5층건물 대지 527㎡ 건물 1,221㎡ 보증금 2억 월 1천만 매매 18억
- ★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건물 999㎡ 보증금 1억 월 6백5십 매매 17억

병원, 공장 매매 및 임대 구함 / 광주 근교 토지 급 구함 /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